

Gloria
in Excelsis Deo

한국틴스타 소식지 통권 57호

오 사랑 입니다



- 02 들어가는글_생식력 자각으로의 초대(김혜정)
- 04 지면강좌_자기 증여의 전형, 남녀의 혼인적 사랑(이윤이 수녀)
- 06 2022 전국교사모임 및 재교육 스케치
- 10 교육후기_하느님께서 손수 뿌리신 틴스타의 씨앗(이정원 수녀)
- 12 틴스타 지금_틴스타 소식, 2022하반기 수업현장, 후원자 명단

2022
12

생식력 자각으로의 초대

김혜정 베로니카
(한국틴스타 프로그램디렉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의 일입니다. 2006년 8월, 오스트리아에 모인 국제 틴스타의 회원국들은 각국의 활동 발표를 들으며 좋은 에너지를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던 한국 틴스타를 따라간 제게 여러 나라의 코디네이터들이 틴스타 프로그램을 적용하며 직면하게 된 상황을 발표하고, 서로 자국의 일처럼 공감하는 모습은 ‘함께’하는 틴스타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eenSTAR program is focused on fertility awareness!!”

그 때, 발표를 지켜보고 있던 한 교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의 귀에 꽂히듯 들렸습니다. 한나 수녀님의 현장 파트너 교사로, 부모 모임 등의 틴스타 프로그램을 구체화했던 Mary Lou Bryant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한국 틴스타 전국교사 모임에서 마치 그 때를 재연한 것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교사 자격증 수여식 전 함께 읽는 선서문에도 나와 있듯이, 틴스타 교사는 틴스타 프로그램의 핵심이 생식력 자각이라는 확신을 자신의 삶안으로 통합하는 사람입니다. 그 통합의 과정을 통해 틴스타 교사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며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반해주게 됩니다. 이번 전국

교사모임도 그 사실을 다시 새기고, 한국틴스타의 ‘바른 길’을 점검해보는 기회였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생식력을 자각하고 총체적으로 통합해가는 것은 몸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함께 몸과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조화롭게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생식력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고유한 ‘여성성’, ‘남성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 고유한 여성성과 남성성을 토대로 우리의 사랑은 또 다른 나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 사랑의 흐름 속에 생명 출산 능력(생명 전달 능력) 또한 있음을 깨닫게 되고, 성적인 존재로서 자기결정능력을 언제, 어떻게 발휘해야 하는지를 숙고하게 됩니다.



▲ 2022년 전국교사모임, 정교사 자격증을 받는 선생님들

틴스타 교사들이 이 길고, 수고스러운 과정에 동반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과 성, 사랑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응답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198차 장승포성당 워크숍에 참가중인 부부

거제도 3개 본당(장승포, 옥포, 장평) 연합 워크숍을 주관한 올리베타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의 이정원 데오필라 수녀님이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을 독려하며 특방에 올린 글을 옮겨봅니다.

“어제는 우리 몸 안에 하느님께 받은 생명의 질서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과 진실을 구체적으로 직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정기록과 점액관찰기록을 통해 내 몸의 생식력을 직접 자각해보기로 해요~”

언젠가 K수녀님과 ‘성인을 위한 틴스타(총체적인 성)교안을 만들기 위해 작업을 3개월 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녀님의 생식력 자각과 개별면담은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정의 말미에 수녀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수도회에 입회하였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작 제 몸에서 하느님을 찾았어요.”

그 기쁨이 어떠했는지 모두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자기 몸에 깨어 사랑하는 이에게 진리의 사랑으로 잘 닿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길 청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5쪽에서 이어짐) 언제나 공적인 인정을 필요로 하며, 그 약속은 이제 그들이 함께 살아가게 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규정합니다. 부부는 공동의 운명, 공동의 미래, 공동의 시간, 공동의 행복에 참여하는 ‘상호적인 우리’가 됩니다.

셋째는 충실성입니다. 혼인 서약의 대상은 ‘어떤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내어 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약속은 서로의 한 순간만을 채우겠다는 것도, 특정한 기간만을 의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인간적 허약함이나 문화의 유약함도 인간 사랑에서 ‘영원히’라는 본성적 특질을 떼어놓지 못합니다. 사랑은 무한에까지 뻗어가는 갈망이기에, 충실성은 언제나 사랑의 본질에 속합니다.

넷째는 생명출산능력입니다. 성은 본질적으로 내재적 출산 기능(생식력)을 내포합니다. 남녀의 성적 상이성은 두 사람이 새로운 생명에 열려 있음으로써 그들이 그저 자신들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새로운 생명 출산을 통해 더욱 확장되며 미래를 향해 열리게 해 줍니다. 사랑과 생명을 분리할 때 우리는 자기증여를 축소하게 됩니다. 부모됨은 자기증여의 확장을 통해 서로가 상대방에게 선사하는 선물입니다.

이와 같이 배타적이고 공적이며 충실하고 열매 맺는 사랑은 혼인성소와 수도성소, 사제성소 안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야 할 ‘자기 증여의 혼인적 사랑’입니다. 혼인과 독신 둘 모두 혼인적으로, 곧 자기 자신을 전적인 선물로 줌으로써 남녀의 몸에 새겨진 사랑의 본성인 ‘몸의 혼인적 의미’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톨릭 성교육 틴스타는 남녀 성적 상이성을 하느님의 모상됨을 드러내는 자리로, 각자의 신분(성소) 안에서 자기증여의 혼인적 사랑을 살아가도록 촉진합니다.

자기증여의 전형, 남녀의 혼인적 사랑

이윤이 에스텔 수녀

(아씨시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 본 글은 2022년 전국교사모임 및 재교육의 강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한 편에서는 혼인을 시대에 뒤떨어진 그저 낡고 고루한 제도로, 다른 편에서는 어떤 형태의 결합이든 남녀의 혼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한 남자의 남성성과 한 여자의 여성성을 토대로 하는 지속적이고 전적인 결합인 혼인적 사랑’을 하느님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는 자기증여의 전형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남자와 여자, 하느님 모상을 드러내는 자리

우리가 성(sexuality)의 기원과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으로 부르심 받았는지, 무엇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실현하는지, 어째서 인간이 하느님을 닮은 존재인지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의 「향연」에서는 인간 성(性)의 기원을 자용동체인 ‘안드로진 신화’를 통해 설명합니다. 신의 권한에 함부로 도전한 것에 대한 벌의 결과로 서로 갈라지게 된 그들이 저마다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헤매게 된 것을 남자와 여자가 본 성적으로 서로 끌리고 갈망하는 에로스(사랑)의 기원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녀의 성적 상이성은 무언가 부정적인 것, 곧 불완전, 부족과 결핍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성은 자신

의 의지나 자유로 어찌지 못하는 ‘문제’가 되어 버리고, 그 결과 인간은 성적 욕구에 지배되는 그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정의됩니다. 성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본래 선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이었던 에로스(eros)가 몰락합니다. 에로스는 그저 성적 결합을 위한 욕구나 충동으로 축소되고, 사랑은 성관계의 권리나 의무로 등치되며, 나와 성적으로 다른 타자는 그저 내 결핍을 채우는 데 필요한 대상이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의 목적은 다른 이와 결합 그 자체에 머물게 됨으로써, 성의 본질인 생명출산능력은 처음부터 그 자리를 잃게 됩니다.

반면, 창세기가 전하는 인간 창조 이야기에서는 성의 기원과 목적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창세 1,27)는 말씀은 우리 인간 존재의 객관적 존엄인 ‘하느님의 모상됨’을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곧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고유하고 구분되는 특질들에도 불구하고, 둘 모두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동일한 존엄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그들 존재만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 안에서도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의 상이성은 하느님 창조의 결과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특별한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두 번째 인간 창조 이야기에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는 사람(아담)이 체험한 고독에 주목합니다. 그 고독은 “한 인격 곁에 한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도움”의 부재와 인격들의 친교에 대한 갈망을 가리킵니다. 이는 인간의 성이 생물학적 본성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인 인격적 차원으로 격상되고, 남자와 여자의 상호보완적인 몸(남성성-여성성)이 서로에게 선물이 됨으로써 상호적 자기증여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가 됨을 말해줍니다.

우리 각자는 그 자체로 온전하고 자율성을 지닌 인격(페르소나), 그 누구로도 대체되거나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한 한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한 몸’은 두 명의 고유한 인격의 결합이지, 결핍된 반쪽이의 결합이 아닙니다. 비록 성적인 다름에서 생겨나는 본성적인 끌림은 우리의 본질적 불완전성과 나약함을 드러내지만, 이것은 단지 부정적인 의미를 넘어 우리 전재의 근원적인 관계성을 깨닫게 만들며, 어떤 분명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누군가를 위해 있는 관계적 존재이며, 타인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사는 삶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상 우리의 성적인 몸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어야만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남성성-여성성은 근원적 방식으로 체험된 선물의 원초적인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은 해소하고 분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창조주의 사랑을 반영하는 상호

적 자기증여의 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존재방식인 ‘전적인 자기증여’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신의 남성성-여성성을 바탕으로 전적인 상호증여를 통해 실현함으로써 하느님의 모상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윤리를 이해할 때, 남녀 한 몸의 일치가 하느님 사랑의 분명한 표지라는 사실을 분리하고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가톨릭교회가 모든 형태의 혼외 관계, 생명에 개방되지 않은 성관계에 ‘NO’하는 것은, 바로 약속 없는 성관계, 증여(선물)없는 성관계에 ‘NO’하는 것입니다.

2. 자기증여의 전형, 남녀의 혼인적 사랑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성을 통해 모든 진실을 담아 자신을 전적으로 주는 행위가 가능한 자리는 오직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선택된 부부사랑의 서약인 혼인뿐입니다.”(성 요한 바오로 2세 「가정공동체」 11항) 부부의 결합은 성을 통해 사랑으로 배우자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주는 고유하고 특별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혼인적 사랑이 하느님 모상을 드러내는 참된 자기증여의 전형이 되기 위해서는 ‘한 분이시고 언제나 충실하시며 생명이신’ 하느님의 사랑이 그들 사랑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사랑의 고유한 특징은 첫째, 오직 서로에게만 유보된 방식으로 자신을 내어주며 사랑해야 할 배타성입니다. 부부의 ‘한 몸’은 섹슈얼리티를 통한 전적인 자기증여(선물)를 통해 자기 자신과 부부애로서 사랑이 증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공적 약속입니다. ‘너만을 영원히’라는 배타적이고 전적인 증여의 약속은 (3쪽으로 계속)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3) 인간의 진리와 사랑의 소명

1. 삼위일체, 자기 증여의 원천이자 예형
2. 자기 증여의 전형, 남녀의 혼인적 사랑
3. 자기 증여, 인격적 사랑의 바탕



성과 사랑의 의미를 단순히 쾌락을 위한 성행위로 축소하려는 사회적 경향이 거세지고 있지만, 우리는 성과 사랑의 본질이 생명을 지향하는 조건없는 자기 증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국교사모임은 자기 증여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불림 받았음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동안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많은 교육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 대면 모임 온라인 연결과 개인 온라인 참여를 남산 유스호스텔에서의 대면 모임과 동시에 진행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만남을 유도해보았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님 축사



특히 올해는 서울대교구 정순택 대주교님께서 영상 메시지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선사하신 성, 생명, 사랑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틴스타 교사여러분의 활동에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사랑의 진리를 깨달은 틴스타 교사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북돋아주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서울대교구를 비롯하여 많은 본당

과 현장에 틴스타 활동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며 “강복을 보내”주셨습니다.

SESSION 1.

삼위일체, 자기 증여의 원천이자 예형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틴스타 대표이신 양주열 신부님의 주제 강의와 더불어 자기 증여 그 자체이신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SESSION 2.

자기 증여의 전형, 남녀의 혼인적 사랑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 교수녀회의 이윤이 수녀님을 모시고 자기 증여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남녀의 혼인적 사랑의 특성을 살펴보고, 혼인과 독신이 서로를 비추고 보완하며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이 본 소식지 4~5쪽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나 수녀님 온라인 연결

틴스타 창립자인 한나 클라우스 수녀님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결하여 잠깐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 새겨진 객관적인 진리를 무시하고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시대적 흐름에 대해 깊이 우려하셨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틴스타 교사들에게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수녀님의 메시지는 한국틴스타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며, 요약본이 본 소식지 8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SESSION 3.

부성과 모성, 인격적 사랑의 바탕

뒤이어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박은호 신부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인격적으로 관계맺기 위해 바탕이 되는 자기 증여의 구체적 체험으로써 부모됨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증여의 삶을 자신의 자리에서 실천하도록 함께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한국틴스타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며, 본 소식지의 별책부록으로 함께 발송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SSION 4.

활동 공유와 정교사 자격증 수여식

마지막 세션은 전국 각 지역 틴스타의 활동을 나누고, 내년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해동안 전국 각 지역에서 틴스타 교육을 통해 맺은 사랑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올해 교사양성워크숍을 수료하고 실습 전 과정을 마친 열 세 분의 선생님들께 서울-포항이원 생중계로 정교사 자격증 수여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에서 모여 줌으로 전국모임과 함께한 포항틴스타 파견미사

전국교사모임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증여를 통해서 창조된 우리 모두는 자기 증여를 위해 존재함을 되새기고, 틴스타 교사들의 모든 활동이 결국 자기 증여의 실천이며, 사랑의 소명에 응답하는 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1박2일 동안 전체 진행을 맡아주신 이창영 이냐시오 신부님(예수성심전교수도회)과 모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후원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틴스타 전국교사모임에 보내는 한나 수녀님 말씀

사랑하는 틴스타 동료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번 주제인 '인간의 진리와 사랑의 소명'은 진리도 사랑도 찾아보기 힘든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근본으로 두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한 진리를 근본으로 둔 사랑없이 우리 인간은 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몸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마음도 성장하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몸에 관한 진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생식기의 발달이 지닌 신체적 의미와 자신들의 감정과의 관련성,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목적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WHO, 유네스코를 포함한 국제 기구들은 'LGBT'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노력으로 '포괄적 성교육'의 도입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사회적 성(gender)이 생물학적 성(sex)과 직접적으로 상반될 수 있음을 가르치면서, 개인의 성적 취향과 그 취향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구별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시민 권리 운동들과 국가 정부들 안에서 매우 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성별불쾌감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을 전환하기 위해 약물 투여나 수술을 서둘러 진행하곤 합니다.

틴스타는 자신의 몸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것에 대한 우선적인 예방책입니다. 틴스타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의 압력보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도록 돕습니다. 틴스타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생식력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도록 돕고, 그들의 장기적 목표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데 있어 훌륭한 도구입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2. 11.13. 한나 클라우스



한국틴스타 • 2022.11.12~13

내일의 전국교사모임을 위한 제언을 받습니다~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여 2022 전국교사모임 결실을 확인하세요.



숙소, 식사, 간식.. 세심하게 준비해주셔서 따뜻함 받고 갑니다. 좋은 강의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신부님들 수녀님, 진행에 좀 접속 시스템을 왔다갔다 도와주시는 신부님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온라인 참석과 대면 참석. 고민을 했었는데 용기 내어 직접 만나는 시간은 역시나 서로에게 큰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줌으로 접속해서 한분의 선생님이라든 더 많이 참여하게 배려하는 모습도 좋았습니다.

내년에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주어진다 면 좋겠습니다. 일년 동안 수업을 위해 나누고 연구하고 전체 모임에서는 그것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각 지역에서 또 많은 기도와 열매를 맺고 만나면 행복할것 같습니다.

RE: 고맙습니다. 전국교사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은 마치 조금씩 저축해두었던 사랑의 마음을 한꺼번에 찾아 쏟아 붓는 것 같습니다. 12주 수업을 시작하면 참가하는 분들을 그 기간 내내 생각하듯이 틴스타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도움 받고, 지지받고, 기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이 곧 사랑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습도 터전도 다르지만 서로가 있어 힘이 되어주는 우리들을 위해 2023년 전국교사 모임 때도 한 자리에 모여 밝게 이야기 나누길 바랍니다.

지역 대표님 통해서 자료 공유가 잘 되고 있는데, 지역 간에 자료공유가 더 잘 났으면 좋겠어요~

RE: 홈페이지를 통해 좋은 자료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튜브 등 자주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이라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견용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서로 이해하는 틴스타교사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상, 거리상 참여 못 하시는 샘들도 참여의 기회를 줌

RE: 내년에도 또 뵈요~^^ 고맙습니다

틴스타 수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선생님들은 열정과 자료가 많아도 12주를 꽉 채워하기엔 부담스러운 거 같아요 그래서 보조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많으면 좋겠어요~ 고로 2023년엔 틴스타가 길이길이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모임에서 숙소와 밥은 좋았구요, 강의는 두말할 거 없이 완벽했구요! ♡ 감사 신부님들 수녀님, 선생님들 대애~박 멋쟁이!! 다음엔 당연히 만나는 거죠?!?!!!

RE: 맞아요~^^ 12주 동안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낸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누히 말씀드리는데 처럼 '생식력 자각'과 개별면담이 교육의 핵심이다 보니 수업에 다른 분(틴스타 보조 교사 또는 학교 담임 교사)이 들어가시면 오히려 수업 중 내밀함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에게 교사가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한 수업에 담당교사 외에 다른 분은 함께 하지 않거나 한 교사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담당교사와 상의해 볼 수 있습니다.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지식으로 알면 안 되고 가치를 내 삶에서 성령과 함께 해야함을 알고 항상 명심하지만 아직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느낍니다. 그리고, 모임 말미에 김혜정 선생님께서 고민해 보자고 한 여러가지들 꼭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현장에서 수업 마지막날 아이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인디언은 말을 달리다가 멈추어서서 앞을 보지 않고 뒤를 돌아 본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성찰하고 앞으로 달려나간다. 성찰하고 더 큰 용기로 달려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RE: 고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개선할 것들과 보완해야할 것들을 성찰하고 용기로 전진하여 온 틴스타가 있습니다. 쉽지 않았던 세월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시행착오는 교훈이 되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얻어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2023년 한국틴스타 수업, 워크숍 운영 관련하여 논의할 사항들을 각 지역 담당신부님과 선생님들과 공유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손수 뿌리신 틴스타의 씨앗

이정원 데오필라 수녀

(마산교구 장승포성당 /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

‘거제도’에 와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남쪽의 아름다운 섬 거제도에 위치한 장승포 성당에서 소임하고 있는 데오필라 수녀입니다. 평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의 가르침과 일상생활 사이에 괴리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부분이 ‘성’에 대한 영역이라고 생각했기에, 몸과 성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살아가도록 알려주는 틴스타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본당 주일학교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궁리하던 중 틴스타 교육을 접하게 되었고 본당 교리교사들도 온라인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일학교에 도입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막막해하던 차에, 마침 틴스타 김혜정 선생님께서 “제가 거제도에 직접 가서 교사들과 자모들에게 특강을 하면 어떨까요?”라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에서 거제도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도 6시간은 족히 걸리기에 차마 서울에서 와달라고는 요청할 상상조차 못했는데, 어떻게 여기 오실 생각을 하셨을까 놀라워하던 저에게 선생님 왈, “그런데 거제도가 어디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먼 길을 기꺼이 오시겠다는 선생님의 사도적 열정에서 성령의 바람이 제 마음으로 전해져 감동과 감사함 속에서 소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거제도는 섬이라는 특성상 신앙 관련 교육의 기회가 드물어서, 그간 자녀들의 올바른 성교육에 관심과 고민이 많았던 부모님들

의 열띤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틴스타 워크숍을 계획하게 되었고, 거제도 내 다른 본당들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신청을 받기 시작하자, 4회는 너무 많으며(엄청 줄인 건데!) 그렇게 긴 시간은 내기 어렵다는 반응들로 신청자 수가 2명에서 멈추었고, 제 속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과 강사진이 얼마나 좋은지 일일이 다시 설명하고 참여를 권했지만 그 이상은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라 모르겠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자.’하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신청자가 30명에 달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계획이나 능력이나 안

달복달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직접 틴스타 강사진, 본당 신부님, 신자분들의 마음을 차근차근 움직이시어 손수 이루어가시는 일을 체험하면서, 거제도에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틴스타 워크숍을 하면서 자모들과 대화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모이면 함께 몸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역사와 현재의 고민을 나누고 하느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태 몸에 무관심하게 살아왔는데, 나의 몸에 깃든 사랑과 생명력을 새롭게 바라보고 알아듣는 것이 신기하고 신난다고들 하십니다. 관점의 변화로 인해, 전에는 수녀 앞에서 말하기 조심스럽다고 여겼던 몸과 성에 대해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깊이있는 면담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루 프로그램당 무려 2박 3일씩 걸리는 시간과 노력, 비용을 감수하고 기쁘게 먼 길을 오셔서 귀한 강의를 선물해주신 틴스타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느님의 손길로 거제도에 뿌려진 틴스타의 씨앗이 앞으로 활짝 피어나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길 희망합니다.



경기북부

- 9.5 온라인 교사모임
- 10.23, 12/5 파주야당맑은연못성당 소개특강
- 11.25 교사 대면 모임

광 주

- 7,8,9,10월 교사 월례모임

대 구

- 7.12 / 12.20 대건중학교 소개특강
- 7.9 현풍성당 자모회 소개특강
- 7.23~24 교사연수
- 9.24 상인성당, 고성성당 자모회 소개특강
- 10.7 남산초등학교 기획 프로그램
- 9.18/10.4/11.6 성정하상주일학교 기획 프로그램
- 10.20 책모임
- 8.25/ 9.29/ 10.27/ 11.24 교사월례모임
- 12.19 교사 송년미사

부 산

- 10.22 부산교사회 첫 모임
- 6.29 부산 평화방송 '하늘타리' 출연
- 11.26 거제동성당 소개특강

서 울

- 7.10/7.17 여의도성당 견진과정 기획프로그램
- 12.14 교사 송년모임

인 천

- 7.9 제2회 인천 틴스타의 날
- 10.20 /11.13 교사 월례모임
- 12.16 교사 송년미사

제 주

- 10.29 교사모임
- 10.30 신제주성당 소개특강



경기북부 파주야당맑은연못성당 소개특강



대구틴스타 교사연수



부산틴스타 교사회 첫 모임



인천틴스타 제2회 틴스타의 날



제주틴스타 신제주성당 소개특강

2022 하반기 한국틴스타 수업현장			
	지역	현장명	담당교사
학교	과천	관문초등학교(어린이)	곽명현 선생
	광주	상무초등학교(어린이)	박하영, 이혜미, 장남희, 임하영, 이명효, 고선희 선생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여성)	박현화 선생
	인천	소명여자중학교(소년소녀)	김지윤, 민선숙, 이병주, 임송빈, 황윤정 선생
		인천 가톨릭대학교(성인)	이창영 신부
포항경주	오천중학교(소년소녀)	문태근, 사금연, 홍경희, 배수경, 김외택, 최성금, 신현옥	
종교 단체	대구	복현성당(소년소녀)	김영건, 박민정, 석현경 선생
		육수성당(성인)	조홍범 선생
	서울	청년피정팀(성인)	김혜정 선생
		장위동성당(성인)	김혜정, 조정란 선생
	포항경주	지곡성당(어린이)	김민아, 서성진 선생
	부산	정관성당(소년소녀/여성/남성)	이안나, 윤성수, 구영우 선생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련회 수련소(성인)	김미정 선생
	울산	병영성당(어린이/성인)	김태영, 하현주, 김도희, 김인영, 하영애 선생



광주 상무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틴스타



서울 장위동 성당 성인을 위한 틴스타



대구 복현성당 소년소녀를 위한 틴스타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련회 수련소 성인을 위한 틴스타

생명교육

- 7.1~3 청년생명피정 생명위원회와 공동 주관

전국 대표교사회의

- 8.30 Zoom 회의

부모 세미나

- 5차 부모세미나(9-11세)
2022.7.9.~30 마을공동체 하나의, 초등방과후 돌봄
- 6차 부모세미나(9-11세)
2022.11.19.~2023.1.17. 온라인

교사양성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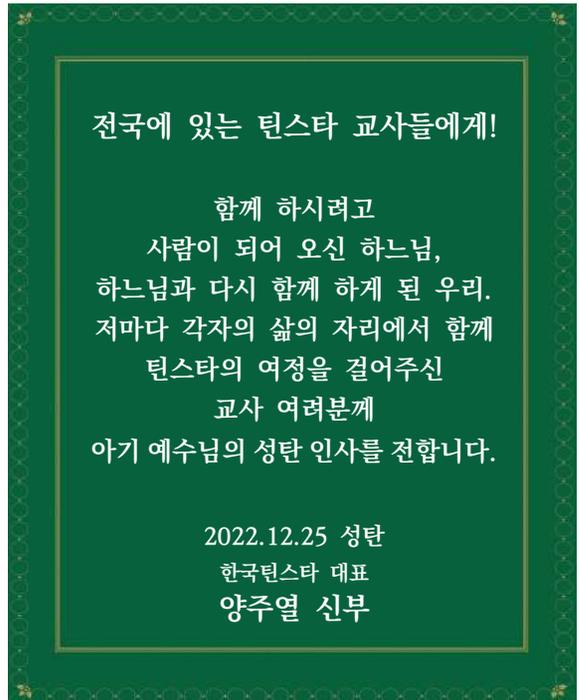
- 193차 서울가톨릭대학교 부제반 워크숍(4일)
2022.7.4.~8 서울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194차 대구대교구 4대리구(포항경주) 워크숍(4일)
2022.8.27.~28, 9.3~4 포항장량성당
- 195차 서울틴스타 워크숍 (5일)
2022.9.3./4/17/18/24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5층 회의실
- 196차 인천교구 생명사목부 교사양성 워크숍 (4일)
2022.9.17.~18/24~25 인천교구 사회사목센터
- 197차 대구대교구 고성성당 워크숍 (5일)
2022.10.22.~12.3(매주 토) 고성성당
- 198차 장승포성당 워크숍(4일)
2022.11.27.~12.18(일) 장승포성당
-
- 199차 제주틴스타 워크숍 (4일)
2023.2.4.~5.11~12(토~일) 신제주성당
- 200차 수원교구 제1대리구 워크숍(8일)
2023.2.11.~4.1(토) 수원대리구청
- 201차 온라인 교사양성워크숍
2023.3월~5월 매주 2시간씩 12주

언론보도

- 2022.9.2. / CPBC 뉴스 “성,사랑,생명 분리될 수 없어” 19년차 틴스타 강사에게 듣다
- 2022.11.3. / CPBC 토크콘서트 For you - 사랑받고 사랑하는 인격적 성교육
- 2022.11.20. / 가톨릭평화신문 <한국틴스타, 2년만에 전국교사모임 및 재교육 진행>

영상

- <자연주기법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점 >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194차 대구대교구 4대리구 포항장량성당 교사양성워크숍

[2022년 후원자 명단]

강경희, 강나원, 강명선, 강보심, 강서은, 강성실, 강성희, 강성희, 정병모, 정선주, 정성희, 정성희, 정양숙, 정영미, 정재명, 정재우, 정주연, 정해인, 정해정, 정형민, 정화주, 조경득, 조규호, 조미경, 조미선, 조미영, 조미희, 조병호, 조복희, 조성희, 조영신, 조영종, 조용운, 조원준, 조은아, 조정란, 조정옥, 조진화, 조진화, 조화수, 조희수, 진성옥, 차형주, 차효숙, 채도근, 최 훈, 최도환, 최명숙, 최병혜, 최수녕, 최승화, 최연수, 최윤서, 최재분, 최재영, 최정혜, 최춘단, 최현숙, 최혜원, 편성미, 하경옥, 하경희, 하영애, 한경숙, 한승덕, 한승희, 한혜정, 한희석, 허동, (주)메탈 153, 허성학, 허세란, 허옥희, 홍미숙, 홍선자, 홍성지, 홍성희, 홍영숙, 홍은미, 홍종욱, 홍호선, 황금화, 황문숙, 황보운, 황유숙

김경희, 김관수, 김귀임, 김금남, 김기록, 김기환, 김대성, 김말순, 김명옥, 김미숙, 김미정, 김미하, 김민지, 김삼례, 김상미, 김선미, 김선미, 김선영, 김선옥, 김선이, 김선자, 김선자, 김선주, 김선화, 김성도, 김성순, 김성언, 김성희, 김소영, 김수경, 김수연, 김수영, 김수영, 김수진, 김신정, 김애경, 김애경, 김여옥, 김영란, 김영수, 김영수, 김영숙, 김영숙, 김영주, 김영진, 김영혜, 김영희, 김옥순, 김용성, 김용주, 김윤경, 김윤정, 김윤혜, 김은실, 김인순, 김재관, 김재림, 김정미, 김정선, 김정숙, 김정은, 김정임, 김종후, 김중현, 김지선, 김창남, 김춘태, 김충경, 김탄렬, 김태순, 김한식, 김한신, 김해옥, 김해은, 김향란, 김향숙, 김현경, 김현순, 김형일, 김혜선, 김화영, 김효정, 김희옥, 김희정, 나영훈, 남길용, 남용기, 남정림, 남향오, 노정순, 도복순, 류경혜, 류기운, 류호영, 모철완, 민송희, 민혜원, 박규식, 박기웅, 박도연, 박미경, 박미정, 박미화, 박민계, 박병남, 박봉자, 박상옥, 박선영, 박선은, 박선희, 박수진, 박신안, 박영신, 박영자, 박옥란, 박원기, 박은영, 박은정, 박은호, 박은화, 박인서, 박인석, 박재석, 박 정, 박정남, 박정숙, 박정아, 박정우, 박충천, 박진형, 박 철, 박해량, 박현순, 박희중, 방경준, 방미경, 방윤지, 방정희, 방춘자, 배안나, 배연희, 배윤주, 배은주, 배정은, 배현미, 백미경, 백민주, 백현주, 변미선, 서미영, 서민지, 서영예, 서은지, 서춘애, 석현경, 섭화현, 성남숙, 성미희, 성양경, 성진우, 손경숙, 손광옥, 손상열, 손승현, 송미령, 송미숙, 송선경, 송은희, 송지연, 송채영, 송현석, 신경미, 신경숙, 신경승, 신미영, 심부덕, 심수연, 심은남, 안경득, 안경렬, 안남주, 안수경, 안승관, 안인선, 안인숙, 양기선, 양영희, 양주열, 엄주연, 연은주, 오경애, 오경택, 오상희, 오세민, 오세옥, 오수동, 오연수, 오요한, 오은주, 오인석, 우미란, 위선희, 유기상, 유송자, 유송상, 유영규, 유자경, 유재옥, 유정열, 유형옥, 육행선, 윤경희, 윤경희, 윤광희, 윤미향, 윤병준, 윤오선, 윤옥순, 윤종섭, 윤지은, 윤진, 윤토마스, 윤화숙, 은 주, 이경림, 이경선, 이경숙, 이경원, 이경자, 이경화, 이경화, 이근주, 이금자, 이동준, 이명희, 이명희, 이문환, 이미경, 이미숙, 이미희, 이민옥, 이병옥, 이보배, 이상숙, 이상순, 이상옥, 이상호, 이선화, 이수경, 이수련, 이수민, 이수진, 이수호, 이숙기, 이순례, 이순희,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영희, 이우석, 이윤희, 이윤우, 이은경, 이은경, 이은숙, 이은영, 이은영, 이은정, 이의정, 이임재, 이정미, 이정숙, 이정순, 이정은, 이정은, 이정현, 이정화, 이정화, 이정희, 이주경, 이지영, 이지향, 이하나, 이형윤, 이호욱, 이회정, 이효순, 이훈정, 이희경, 이희정, 이희정, 임광희, 임미나, 임미라, 임수경, 임해원, 장성옥, 장순덕, 장승혁, 장영록, 장유리, 장지숙, 장혜경, 장희선, 전춘금, 정광미,

정미영, 정병모, 정선주, 정성희, 정성희, 정양숙, 정영미, 정재명, 정재우, 정주연, 정해인, 정해정, 정형민, 정화주, 조경득, 조규호, 조미경, 조미선, 조미영, 조미희, 조병호, 조복희, 조성희, 조영신, 조영종, 조용운, 조원준, 조은아, 조정란, 조정옥, 조진화, 조진화, 조화수, 조희수, 진성옥, 차형주, 차효숙, 채도근, 최 훈, 최도환, 최명숙, 최병혜, 최수녕, 최승화, 최연수, 최윤서, 최재분, 최재영, 최정혜, 최춘단, 최현숙, 최혜원, 편성미, 하경옥, 하경희, 하영애, 한경숙, 한승덕, 한승희, 한혜정, 한희석, 허동, (주)메탈 153, 허성학, 허세란, 허옥희, 홍미숙, 홍선자, 홍성지, 홍성희, 홍영숙, 홍은미, 홍종욱, 홍호선, 황금화, 황문숙, 황보운, 황유숙

[한국틴스타를 위한 단체 후원]

광주틴스타, 부산 정관성당, 생명위원회, 서울틴스타, 수원틴스타, 야당 맑은 연못성당, 인천틴스타, 장승포성당, 전국교사모임, 전주틴스타(구), 하비에르국제학교

[대구틴스타를 위한 단체 후원]

남산초등학교, 대건중학교, 대명중학교, 동촌성당 자모회, 범물성당 자모회, 복현성당 주일학교, 상인성당 자모회, 성정하상 주일학교, 현풍성당 자모회, 효성여자고등학교

[서울틴스타를 위한 개인후원 및 단체 후원]

서울틴스타 후원금 계좌: 우리은행 1005-602-944253
(재)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김혜정, 김영숙, 정문호, 손호빈, 양주열, 일원동 성당, 장위동 성당

[인천틴스타를 위한 개인후원 및 단체 후원]

인천틴스타 후원금 계좌: 신한 131-010-789841
인천교구 생명본부

양승자, 서덕진, 강석형, 이정림, 박인서, 안지혜, 변정임, 정현미, 이병주, 오미선, 오세원, 양경원, 변다영, 오명자, 원지은, 윤재숙, 윤혜숙, 소은아, 천예림, 김민정, 백윤옥, 인천교구 가정사목부, 인천 대건고등학교, 인천 가톨릭대학교, 부천 소명여자중학교

*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은 매해 1월 가정으로 발송되며, 국세청 연말정산 홈페이지에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후원자님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틴스타 후원 안내

한국틴스타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일궈나갑니다. 후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의 CMS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우리은행1005-100-998647 (예금주:한국틴스타)



발 행 일 2022년 12월 (통권 57호 발행)
창 간 호 2004년 10월
발 행 처 한국틴스타
홈페이지 <https://teenstar.or.kr>
주 소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사무동 401호 한국틴스타
E-mail kteenstar@hanmail.net
전 화 02)727-2357~9 / 02)755-2629
팩 스 02)727-2243